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12월16일 창단식을 앞둔 광주 FC가 2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선수단과 구단직원간 상견례를 갖고 2011시즌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필승!… 광주의 희망 되겠다

광주FC 선수단 첫 상견례… 내년 K-리그 선전 다짐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광주 FC)이 상견례를 갖고 2011 K-리그 무대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광주 FC는 29일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사무국에서 최만희 감독을 비롯한 신인 선수 22명과 박병모 단장 및 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상견례 행사를 열었다. 우선 지명을 받은 김동섭(시미즈)과 2011 신인드래프트 1순위 지명 선수인 김호남(사간토스) 등 J리그에서 뛰고 있는 3명의 선수는 시즌이 끝나지 않아 이날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광주 초대 사령탑을 맡은 최만희 감독은 "프로선수로 선택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열정을 가진 경기력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보답하자"고 말했다.

광주 유니폼을 입게 된 광주출신의 박성화(23·조선대)는 "광주 FC에 입단했다는 기쁨뿐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도 동시에 느낀다"며 "새로 입단한 선수들 모두가 광주시를 대표하는 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립 5·18 묘지 참배를 하며 이날 상견례 일정을 마무리한 선수단은 30일까지 메디컬 테스트를 갖는다.

정식 훈련은 내달 1일 시작된다. 선수단은 1일 오전 무등산에서 해맞이 출정식을 갖은 뒤 오후 3시30분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기초훈련을 실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황금장갑 누가 낄까

KIA 최희섭·안치홍·이용규 등 37명 후보 각축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최희섭·안치홍 외야수 이용규가 2010 골든글러브에 도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2010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후보 선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골든글러브 후보로는 출장 경기수와 공·수 전반적인 성적을 기준으로 투수 5명, 포수 4명, 1루수 3명, 2루수 5명, 3루수 3명, 유격수 4명, 외야수 8명 그리고 지명타자 5명 등 총 37명이 선정되었다.

〈최희섭〉 〈이용규〉 〈안치홍〉

■ 2010 프로야구 골든 글러브 구단별 후보자 현황

구단	투수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외야수	지명타자
SK	김광현	박경완	박정권	정근우	최정		김강민	
삼성	차우찬			신명철			박한이	박석민
두산	정재훈	양의지	최준석			손시헌	김현수 이종욱	김동주
롯데		강민호		조성환	이대호		손아섭	홍성흔
KIA			최희섭	안치홍			이용규	
LG		조인성			정성훈	오지환	이대형 이진영	박용택
넥센	손승락					강정호		송지만
한화	류현진			정원석		이대수		

두산이 2루수와 3루수를 제외한 6개 부문에서 7명의 후보를 배출했고, SK와 LG가 6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09 페넌트레이스와 한국시리즈를 석권한 KIA는 지난해 7명의 후보를 내세워 투수(로페즈)·포수(김상훈)·1루수(최희섭)·3루수(김상현)부문 골든글러브를 가져갔지만, 올해는 3명만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쳤다.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는 단 한 명도 후보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KIA 용병 로페즈와 신인 안치홍이 후보로 선정됐었다.

1루수 부문 후보 최희섭은 올 시즌 0.286의 타율(26위)로 84타점을 기록하면서 타점 부문 전체 8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쟁상대는 '한국시리즈 MVP' SK 박정권과 0.321의 타율로 22개의 홈런을 쏘아올린 두산의 최준석이다.

프로 2년차 안치홍은 2루수 부문에서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타율 0.291을 기록한 안치홍은 타격 23위와 득점 8위(79점)로 시즌을 마감했다. 최다안타 4위·도루 5위를 찍으며 SK의 테이블 세터로 맹활약한 정근우와 0.336의 타율로 타격 3위에 오른 롯데의 캡틴 조성환이 강력한 경쟁자다.

2006년 골든 글러브 수상자 이용규도 외야수 부문에서 김강민(SK), 박한이(삼성), 김현수·이종욱(두산), 이대형·이진영(LG)과 각축을 벌이게 된다. 이용규는 올 시즌 0.307의 타율로 타격 10위, 최다안타 공동 5위, 출루율 9위에 올랐다.

수상이 확실시 되는 타격 7관왕 이대호가 버티고 있는 3루수 부문에서는 SK 최정과 LG 정성훈이 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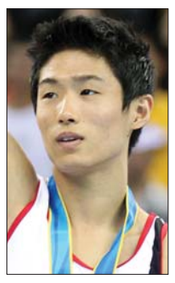
유격수 부문에서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두산 손시헌과 넥센 강정호의 2파전이 예고된 가운데 LG 오지환과 한화 이대수가 합류했다. 삼성 박석민, 두산 김동주, 롯데 홍성흔, LG 박용택, 넥센 송지만은 지명타자 부문에서 경쟁한다.

치열한 접전이 예고된 마운드에서는 다승 1위 김광현(SK)과 방어율·탈삼진 1위의 류현진(한화)이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 홀드 1위 정재훈(두산), 세이브 1위 손승락(넥센), 승률 1위 차우찬(삼성)도 투수부문 후보에 선정됐다.

한편 골든글러브 투표는 내달 8일까지 프로야구 기자단과 중계를 담당한 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 3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상식은 12월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학선 "피날레金도 내것"

내달 도요타컵 체조 대회 출전



27일 막을 내린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기개를 떨친 남자 기계체조 간판 김수면(24·포스코건설)과 양학선(18·광주체고·사진)이 올해 마지막 국제 대회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노린다.

김수면과 양학선 또 다른 기대주인 하창주(22·인천시청)는 12월11~12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열릴 도요타컵 국제초청체조대회에 출전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체조 강국에서 엄선된 선수만 초청, 실력을 가리는 이벤트다.

이번 대회에는 11개 나라에서 남녀 50명의 쟁쟁한 체조 달인들이 출전한다.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종합 우승자로 아시안게임에는 어깨 부상으로 결장한 일본의 우치무라 고헤이(21)를 필두로 아시안게임 3관왕 장청룽(중국) 등이 초대를 받았다.

아시안게임 마루운동에서 장청룽과 공동으로 시상식 꼭대기에 오른 김수면과 도마에서 정상을 밟아 중국의 퍼펙트 우승을 저지한 양학선은 금메달 기세를 이어가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연기로 메달을 따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처음으로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 도마에서 4위에 머물렀던 양학선은 당시 우승자 토마 부엘(프랑스)에게 설욕을 예고하고 있어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선수권 대회 때 착지에서 두 번 모두 흔들려 아쉽게 금메달을 내줬던 만큼 화려한 공중 동작 후 제대로 매트에 서기만 한다면 또 다른 금메달도 바라볼 만하다. /연합뉴스

야구인 서재응 '골프 챔프'

작년 우승자 이종범과 올 챔피언 서재응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포츠 조선 제공〉

'나이스 가이' 서재응이 제29회 야구인 골프대회 우승자가 됐다.

29일 경기도 광주 이스트밸리에서 KIA 조범현 감독을 비롯한 96명의 야구관계자가 참가한 야구인 골프대회가 열렸다.

KIA 투수 서재응은 신페리오 방식(숨겨진 12홀의 스코어로 핸디캡을 계산해 타수에 적용,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네트스코어 69.2타를 기록해 챔피언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KIA 외야수 이종범과 투수 코치 이강철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었다.

문승훈 심판위원은 79타를 기록했지만 핸디캡 8.8타를 적용받아 네트스코어 70.2타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3위는 70.8타를 기록한 SK 와이번스 계형철 2군 감독에게 돌아갔다.

삼성 라이온즈 김응룡 사장은 핸디캡 적용 전 74타를 기록해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티샷을 가장 멀리 보낸 롱기스트에는 257m를 날린 박종철 심판위원이 선정됐다. 티샷을 핀에 가장 가까이 붙인 니어리스트는 1.2m를 기록한 한화 이글스 오성일 홍보팀장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야구위원회와 스포츠조선이 공동 주최하고 2010시즌 우승팀인 SK 와이번스가 후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삼성 떠난 배영수, 야쿠르트에 둥지트나

5선발 유력… 계약 초읽기

올해 프로야구가 끝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일본 진출을 시도해 온 오른손 투수 배영수(29)와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 간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야쿠르트 마무리 투수 임창용(34)의 에이전트로 배영수의 일본 진출을 돕는 박유현씨는 29일 "배영수가 이날 일본에 와 야쿠르트 구단의 신체검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와 '스포츠닛폰'도 이날 인터넷판에서 "야쿠르트가 배영수를 유력한 5선발 후보로 영입을 고려 중"이라고 전해 계약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박유현 씨는 "기본적인 연봉에 대해서는 야쿠르트 구단과 협의를 끝냈지만 계약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배영수와 논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